하루를 시작하며

고 춘 옥
시인

제주의 지역경제를 위한 한 걸음

"남원리 동백마을은 동백을 중심 테마로 동백기름을 판매, 아모레퍼시픽과 제휴 맺고, 소길리 풋감마을은…, 송당 메밀마을은…, 가시리에서 유채꽃은…" 마을만들기사업의 브랜드명칭과 이에 관한 얘기를 듣는다는 건 흙냄새가 나는 건강한 소리라 언제나 즐겁다. 마을마다 독특한 커뮤니티를 형성해 세상과 소통하려는 움직임이 실감난다. 그 중에 '신산리마을카페'는 마을사무장이 마을회관의 낡은 창고 한 켠을 고쳐서 바리스타 몇몇과 함께 휴일이나, 짬짬이 남는 시간에 운영하던 것이 한해 매출 9000만원을 훨씬 웃돌았다고 크게 소문났다.

제주의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표적으로 성공한 곳은 유채꽃 프라자와 조랑말박물관이 있는 가시리다. 유채꽃프라자는 법인체제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반면, 조랑말 박물관은 아직 조성이 끝나지 않는 단계로 보인다. 가시리마을만들기사업추진위원단은 보다 앞선 선진산업인 '말을 이용한 치유의 산업'인 호스테라피(Horse Therapy)를 목표로 꾸준히 진행해 가는 과정이라고 관계자는 말한다.

그렇지만 들리는 바로는 신산리마을카페는 운영 주체인 사무장이 바뀌고, 바리스타들의 유휴노동력이 중단되자 옆 마을에서 노동력을 고용하면서부터 마을만들기사업 특유의 수익창출에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다는 단점이 드러났고, 조성단계인 조랑말 박물관 역시 수익성이 좋은 말타기체험은 운영상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적합한 주민에게 사업권을 내준 상태라 소문만큼 실속은 없다고 보아야 했다. 무료입장인 조랑말박물관은 역사지에서 추려 놓은 문구들과 말 사진, 말 목장의 기구들 전시가 전부라 할 만큼 빈약해서 딱히 그렇다할 가치 있는 학습의 장이라고 보기엔 아쉬운 감이 많았다. 그래도 가시리 내에 식당들은 '몸국'을 먹으러 온 관광객들로 인해 몸살을 앓을 지경이라니 그나마 다행이다.

산업 기반이 없다시피한 제주도 경제에 사활을 거는 쟁점 사항은 '지역관광의 활성화'다. 제주도가 불과 몇 년 사이에 매력 없는 관광지로 전락했다. 물론 거시적 차원의 원인들도 있으나 내부적 문제로 돌려서 보면 당국의 '인큐베이팅 중심의 자금 지원'과 '어떤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계획과 구체성이 부족해서다. 또 지자체장이 정치적 목적이나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관광개발 사업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제주는 후자의 경우에 대한 논란이 너무 커서 정작 오래도록 꾸준하게 가야할 전자의 것에는 염두에 둘 여력이 없는 것 같다.

제주도가 아직은 천혜의 경관과 역사 유적이 살아있는 곳이라고는 하나 정작 관광객들의 선호도는 '2016년 쇼핑 75.7%, 식도락 51.0%(매년 증가 추세), 자연경관 28.6%, 역사유적지 25.0%, 박물관 전시관 10.5%, 테마파크 10.5%, 휴양휴식 8.5%, 공연·민속행사·축제참가 및 관람 7.9%'로 비중이 낮은 쪽에 치중, 교통난과 함께 갈수록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가 어려운 시국이니만큼 이웃나라 '콘텐츠 투어리즘'처럼 모든 가능성을 열어 지역경제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요즘이다.

열린마당

오름 가는 날

조 경 화
JDC 이음일자리 새별오름 매니저

아침 7시가 조금 넘어 버스를 타고 화전마을에서 내려 20분을 걸어 새별오름에 도착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음일자리 사업으로 오름매니저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됐지만 동료 언니와 함께 오름 이야기부터 이런 저런 세상사를 이야기하며 오름을 오르는 것은 또 다른 삶의 낙이 됐다.

오름길은 참 아름답다. 크고 작은 꽃들이 웃으며 반겨준다. 어떤 때는 노루와 눈을 맞추며 걷는다. 오름을 오르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인사를 나누기도 한다. 쓰레기를 봉지에 담으며 중턱을 오르면 넓게 펼쳐져 있는 들판과 그 너머 멀리 떨어져 있는 오름들이 눈에 들어온다.

이 순간 누가 부러울까. 나는 동화 속 하이디처럼 소녀가 되는 꿈을 꾸면서 맑고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정상에 오른다. 멀리는 한라산이 보이고 바리메오름, 노꼬메 등을 보며 간식도 먹고 푸르른 냄새를 맡으며 명상을 하기도 하고, 고향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리움에 눈물이 나기도 하고 즐거움도 있고 가슴이 아려오기도 한다.

나는 제주에 자리 잡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신참이다. 오름이란 단어도 생소할 만큼 제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와서 오름매니저 일을 시작했다. 그렇게 직업으로 오름매니저를 하게 되면서 오름의 역사도 배우게 됐고 제주의 아픈 역사 4·3사건에 대해서도 알게 됐다. 자연의 식물들이 계절의 감각에 의해 예쁘게 바뀌어 가는 것도 보고 느끼게 됐다.

오름매니저 일을 하면서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오름을 바라보면 정말 가슴이 뻥 뚫린 것을 느낀다. 가끔은 힘도 들지만 오름을 바라보며 봄처녀의 설렘을 느끼기도 한다. 이런 설렘을 느끼게 해준 나 자신과 JDC, 그리고 주변의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대통령 공약도 될 핵심 프로젝트 만들라"

원지사, 살아있는 계획 주문

○…제주도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지사가 서류상으로만 장식처럼 남기지 말고 도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살아있는 계획 마련을 주문해 귀추가 주목.

13일 열린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원 지사는 특히 "체감이나 공감도가 낮은 부분을 점검해 도민 참여형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

이어 "대통령 공약으로까지 제시될 수 있는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해 달라"며 "실행의 안전성과 당면사업 위주로 갈 경우 계획이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 오은지기자

제주시 태극기 달기 캠페인

○…제주시와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제주시지회가 13일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제74주년 광복절 맞이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전개해 눈길.

이날 캠페인에는 고희범 제주시장, 김도삼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제주도지부장, 고봉하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제주시지회장 및 회원 60여명이 참석해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다짐.

고희범 제주시장은 "광복절에 제주시내 전역에 태극기가 휘날릴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 고대로기자

월동채소 제초제 등록 결실

○…파종을 목전에 둔 제주의 대표 월동채소인 브로콜리·비트·콜라비에 사용 가능한 등록 제초제가 전무한 가운데 농가는 물론 관련 기관·단체의 공동 대응이 결실.

앞서 제주도와 제주도농업기술원, 제주농협은 올해 도입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운영과 관련, 해당 작물에 대한 제초제 등록을 15일까지 적극 요청.

농협 관계자는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도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으로 협조 공문을 각각 발송, 19일부터 시중판매가 허용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발표. 백금탁기자

사설

일본 EEZ 긴장 고조, 제주어선 주의해야

제주어민들의 속이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참고 참으며 한일어업협정이 타결되길 기대했으나 점점 꼬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어업협정은 더욱 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인근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에 대한 강력 단속이 이뤄지면서 제주어민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7~9일 일본 EEZ 경계수역에서 조업하는 도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일본 EEZ 침범 금지 및 위치보고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일본이 자국 EEZ 경계수역에서 우리나라 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데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최근 어업지도선·군함·정찰기 등을 동원해 EEZ 경계수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도 해경 함정과 관공선을 EEZ 경계수역에 집중 배치, 일본측 단속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도 제주 연승어선들이 한일어업협정 결렬로 큰 피해를 보고 있잖습니까. 한일어업협정은 2016년 6월 결렬된 이후 4년째 표류하고 있어 답답합니다. 이 때문에 제주 연승어선들은 서귀포 남쪽으로 160㎞ 떨어진 일본 EEZ에서 갈치를 잡지 못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신 500~600㎞ 떨어진 동중국해와 대만 인근 해역 등 원거리 조업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 제주 연승어선들은 유류비 부담은 물론 원거리 조업에 따른 사고 위험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 어선들이 먼바다 조업에 나섰다가 발생한 사고가 37건에 이를 정도로 적잖습니다. 대체 어장도 확보하지 못해 목숨을 건 원거리 조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제주어민들의 시름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어 걱정입니다.

서귀포시민들 염원 무시해선 안된다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귀포시지역 주민들이 서귀포의료원의 제주대학병원 위탁 운영을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수십년 동안 응급의료체계의 사각지대에서 생활해온 주민들로서는 위탁운영이 갖는 절차상의 문제점이 많지만 최선이 아니면 차악이라도 선택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자하는 발버둥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지난 1964년 제주도립 제주병원 서귀분원으로 문을 연 서귀포의료원은 서귀포에서 유일한 종합병원이라는 명성에 맞지 않게 부족한 의료진과 응급실 공백사태까지 빚어지며 사실상 서귀포지역의 핵심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3년 민간투자(BTL)사업으로 건물은 새로 지었지만 겉만 번지르할 뿐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범시민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협의회는 최근 서귀포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1.2%가 서귀포의료원의 제주대병원 위탁 운영에 찬성했다면서 더 이상 시민들의 의료 인프라 개선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방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원 운영 책임자인 제주자치도는 이에 대해 행정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의 회계와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위탁 운영이 성공을 거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제주자치도가 해결해야 할 몫입니다. 수십년 동안 의료 사각지대에서 생활해온 최남단 서귀포시민들의 염원을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부 고

김한신(재은상사 대표) 아버지 김해김공 영삼(향년 91세)께서 서기 2019년 8월 13일 00시 05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8월 15일(목)
▶발 인: 2019년 8월 16일(금)
(장례미사) 오전 6시 30분
▶빈 소: 동문성당
▶장 지: 한림선영

부 인 장순애
아 들 김한규(故) 며느리 서영선
한신 김연재
한섭 양순희
현철 문지윤
딸 김연희 사 위 박홍춘
손 자 김병헌
정헌
재헌
주헌
지헌

※연락처 : 김한신 010-4660-5737
김현철 010-3699-6119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남양홍공 영진(향년 74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옵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8월 14일

부 인 서원옥
아 들 홍정수 며느리 윤수영
정환 김미희
정필 정금녀
정효 김은하
응준 김미정
딸 홍은리 사 위 임연주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밀양박씨 종순(향년 76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옵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8월 14일

남 편 홍완표
아 들 홍성무 며느리 김은정
성효 문혜원
딸 홍주연 사 위 김윤태

황금향 판매
당도 탁월, 산도 적음
껍질 잘 벗겨짐
생산자 직거래, 택배비 포함
5k(25개~35개) 4만원
10k(50개~70개) 7만원
문의 오문식 010-3696-3933
(도매도 가능합니다.)

계분 판매합니다.
(배 달 가 능)
무항생제인증,
HACCP인증 받은
자연건조한 계분(산란계)판매
전 화 : 064-796-6947
핸드폰 : 010-3699-3344
신일농장, 제주팜
(주소 : 제주시 한림읍 명상로106-7)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제)州(주)리모델링
辛(신)一(일)祚(조)
누수탐지·방수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도어문 / 대문 교체
붙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는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

아름다운 마지막 동행
하귀농협장례식장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405 (노형에서 10분 거리)

● 독립적인 5개의 고품격 분향실
● 독립적인 상주휴게실 및 편의시설
● 하귀농협직영 합리적인 장례비용
● 동시주차 500여대의 넓은 주차장
● 타 장례식장 대비 저렴한 식비 (6찬제공)
●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직영점 운영
● 노형에서 10분거리 (대중교통이용가능)

24시간 무/료/상/담/실/시 24시간/대기
T.798-8800